버스승강장이 시원해진다

전주시, 20개소 에어커튼 40여개 설치 등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 서비스' 추진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원한 바람과 그늘, 시원한 얼음까지 갖추어진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커튼과 그늘막이 설치되고 특히, 승강장의 온도를 낮춰줄 얼음도 비치된다.

전주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여름철 폭염과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의 온도를 낮추는 시내버스 승강장 쿨링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여름 전통시장 주변과 한옥마을 등 승강장 20여 개소에 설치된 에어커튼이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 만큼 올해도 기린대로와 객사 앞 등 주요 거점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 40여개가 추가 설치된다.

또한, 시는 금암광장 등 8개 승강장에는 지붕에 그늘막을 설치해 한낮의 강한 햇볕으로 인한 승강장내 기온상승을 방지하는 등 더운 날씨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특히,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폭염예보가 발령될 때에는 신속히 버스승강장에 얼음을 비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덥거나 추운 날씨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만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김윤권 의원 "119 상시 대기팀 배치를"

김윤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시의회 5분발언에서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 동안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 한벽문화관 등 3개소에서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물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119 상시 대기팀'을 배치해야 한다"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로 채용하는 현장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정시간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관내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119 상시 대기팀' 부스를 마련하여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민원 새 행정시스템 절실"

김원주 의원 "문화행사 전담 관리부서 전무"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행사를 포함한 민원을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주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재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유지 관리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행사는 전담 관리부서가 없다" 며, "문화행사가 주로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예술 공연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관 부서가 너무 많아 문의에 문의를 거쳐야 담당자와 겨우 연결이 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를 통합해 관리 운영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24일 전주시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지노인복지관은 양지노인복지관에서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건강증진을 돕는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남성독거노인 자립생활 돕는다'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오픈

전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건강도 챙기기로 했다.

시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지노인복지관은 24일 양지노인복지관에서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박정택 삼육재단 이사, 전주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독거노인의 자립 역량강화와 건강증진을 돕는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최초로 양지노인복지관에 설치된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건강 및 일상생활에 취약한 저소득 남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양지노인복지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실과 요리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 이곳에서는 향후 총 50명의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20개 생명보험회사가 모여 만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공익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에 선정된 양지노인복지관은 재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리모델링비와 매년 5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남성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선비문화 활성화 뜻 모아

국립전주박물관-영주시 협약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최근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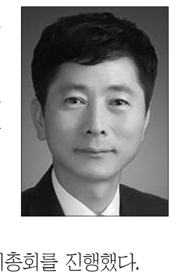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 진흥 및 상호 공동 연구 ▲전시 및 연구를 위한 문화재 및 자료 협조 ▲학술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다.

영주시 소수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소수서원 소장유물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유교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해 현재 3만여 점에 이르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장, 보존, 관리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계 특별전과 선비문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선비문화 주제에 맞춰 어린이박물관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선비문화실을 신설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학교가치 실현, 행복한 우리학교'

이강선 신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전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 학운협)은 전북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전북 관내 14개 시, 군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2명의 협의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전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이강선 회장을 전북 학운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전북 학운협은 전북지역 관내 14개 시, 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꾸려 전북지역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교육에 관한 지역의 여론을 모으는 중요한 창구와 통로가 되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4일부터 1년간이다.

협의회장 선거에는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강선 회장과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장병훈 회장 등 2명의 협의회장이 입후보했으며, 협의회장 14명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이강선 신임 협의회장은 '학교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우리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전북 학운협,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전북 학운협, 지역 맞춤형 연수지원 확대' 등 크게 3가지 공약을 내세워 협의회장들의 표심을 크게 자극했다.

더불어,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행복과 전북 학운협의 도약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전북 학운협, 14개 시, 군 협의회 사무실 마련, 14개 시, 군 협의회 지원 예산 확보, 유관기관과의 공감 간담회 개최' 등을 강조했다.

이강선 신임 협회장은 지난 5월 24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회 제22대 회장에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며, 지역사회 내 활동은 적지 않다.

현재 전주 호남제일고 학교운영위원장,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풍남로타리클럽 총무/이사,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대외협력국장, 법무부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북대학교 총동문회 협력국장, KBS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 등으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음주운전 최대 무기징역 구형

오늘 '윤창호법' 후속 시행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 간의 판결문·결정문과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기준을 구성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주운전 상습범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예방 교육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제로화'

전주시, 어린이집 교직원 480명 대상 법정의무교육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한 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22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4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 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육 교직원의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대응법 및 심폐소생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사고 유형 △아동권리 인식과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실종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인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고 제로 전주시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한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배달 오토바이 훔친 60대 검거

키가 꽂힌 채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8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주유소 주차장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훈 기자

80대 운전자 심야 고속도로

역주행 경찰 대처로 사고 막아

휴게소에 들렀다가 진행방향을 착각한 8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발빠른 경찰의 대처로 사고를 막았다.

24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39분경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통영방향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예상경로를 파악, 순찰차를 미리 배치했다.

이어, 불꽃 신호탄 2개를 터트리고 신호봉과 경적을 사용해 1차로를 역주행하던 A모(88)씨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조사결과 A씨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전과 휴게소 이용 후 반드시 진행방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익산경찰, DNA 대조 분석

15년간 헤어진 모녀 상봉 이뤄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관내 보육시설 탐문과 디엔에이(DNA) 대조 분석 등 끈질긴 노력 끝에 15년간 헤어져 있던 모녀의 극적 상봉을 이루어 줬다.

익산에 거주하던 A씨(39)는 2004년 2월경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목사에게 맡기고 상경하여 딸과 헤어진 후 15년 넘게 생사를 모르고 살다가 최근 주민등록을 정리 하던 중 딸이 등록말소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3월 경찰에 딸을 찾아 달란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익산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진술한 교회는 현재 빈 건물이었고 목사가 운영하던 보육원 또한 불법운영으로 단속되어 당시 보육원생 모두 가 익산시청 관계자에 의해 여러 보육시설로 전원 조치 되었으나, B양의 인적사항 과 일치하는 아동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익산소재 C보육원에 B양과 동일한 이름의 비슷한 나이대의 아동이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설에 오게 된 경위를 역주 적한 결과 출생신고가 2중으로 된 것을 확인하고, 대상아동의 유전자를 채취해 A씨 의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통보를 받아 헤어져 지내던 모녀가 15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훔친 자전거 팔아치운 30대 덜미

중고 매매 사이트에 훔친 자전거를 헐값에 팔아넘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모(3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6시 전주시 완산구 모 공원에 세워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해 15만원에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매장서 등산의류 훔친 60대 검거

진열대에 있던 등산의류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5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시가 38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